



3면

“제조업 부흥시킴 산업전략 필요”
도의회 농산경위 현장 업무보고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음 6월 4일) 제258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민주당-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이태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맞손을 잡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2면>

전북에 공공의대 생긴다

당정 “서남대 정원활용 설립 추진...2024년 개교” 전북도 “부지확보·도시관리계획 절차 등 진행”

전북도는 23일 당정 합의에 따른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발표에 환영 입장을 표하며 앞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과 불균형 해소 차원으로 의대 정원을 현재 3,050명에서 확대해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고 정원 확대와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 공공의대 설립 입법도 추진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보건복지위 간사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향후 조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공공의대대학원을

설립 오는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목적으로 2018년 당정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하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국가 책임 강화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격차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며 “공공의대가 필수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무사관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공의대를 통해 우수한 공공의료인력 확충해 지역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공공보건의료기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꿈과 희망이 존재하는
힐링의 공간, **아양사랑숲**

편백숲에선 사계절 내내 초록 내음이 풍기고
나무를 따라 공원을 거닐며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풍경까지...;

정읍사문화공원 일대의 도시 숲
우뚝 솟은 아양산 아래 '아양사랑숲'

'건강한 숲이 건강한 아이를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언덕 위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 '유아숲체험원'까지

함께 걸어요, 아양사랑숲!

정읍시
JEONGEUP-SI

‘인플루언서’로 베트남 시장 공략

도, MZ세대(1984~2010) 겨냥 현지 온라인몰 입점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해외 수출 시장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 방식으로 베트남 온라인 시장을 공략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Influencer)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말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베트남에 ‘건강’과 ‘변역력’이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며, 전북도는 국내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와 수행기관이 함께 베트남 온라인시장 판로 개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키오프 미팅을 23일 실시했다.

현재 베트남은 전체 인구 중 35세 미만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전북도는 ‘MZ세대’로 표현되는 젊은 소비층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명 SNS를 활용한 짧은 홍보 동영상은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 영상을 본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복안이다.

우선 전북도는 화장품 및 뷰티, 가공식품 등 온라인 판매가 보다 쉬운 국내 소비재 전문기업 4개사를

선정해 현지 수출인증 취득과 함께 온라인몰 입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별 700만 원가량 예산 지원과 베트남 유력 온라인 쇼핑몰인 고미스토어, Sendo, Shopee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베트남 현지 반응이 좋을 경우, 호치민 코트라 무역관 주관 오프라인 판촉전 참가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언택트)을 통한 수출 돌파구를 찾는 게 중요하며, 베트남 진출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인도네시아, 중국 시장 진출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빅데이터 분석... 과학적 행정 추진

도내 대표 관광지 내 와이파이 활용 콘텐츠 개발 등

전북도는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정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빅데이터 분석사업 중간보고회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서 올해 11월을 목표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분석사업 과제는 ▲도내 대표 관광지(5개소) 관광객 와이파이 분석으로 관광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 방안 마련, ▲노인이용시설 분석을 통한 노인보호구역 후보인지 선정, ▲유동인구 분석을 통한 전기차 충전소 최

적지 선정, ▲도내 코로나19 영향 소상공인 매출분석이다.

먼저, 도내 대표 관광지인 전주 덕진공원, 군산 근대문화거리, 김제 벽골제, 임실 치즈파티파크, 고창읍성의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를 통해 재방문율, 접속자 수, 체류 시간과 주변 소상공인, 인구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지역 소상공인 대상 관광상품 및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품위 사회에 발맞춰 도내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교통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실효성 높은 예방대책 마련 지원과 통행량 및 주차 수요분석과 신규 노인보호구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 충전소별 사용 빈도, 사용 시간대, 평균 충전량 등 충전이력과 설문조사, 전기차 관련 민원현황 등 분석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 수요 예측, 충전소 최적 입지선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지난해 동기간 대비 업종·월·일별 비교분석과 매출 추이 분석으로 지원방안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구상 중에 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사업에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 분석이 선정돼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인 분석과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도 박학순 정보화총괄과장은 “분석 대상 데이터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에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군산 호우경보, 고창·부안 호우주의보 발효

25일까지 강하고 많은 장맛비

전북도는 23일 오후 4시 40분 군산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며, 고창과 부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임실, 순창 8개의 시군은 예비비가 발효 중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서는 23일부터 25일 오후 6시 사이 시간당 10~30mm이상의 강한 비가 50~150mm까지 내릴 것으로, 특히 군산 여천도는 시간당 40mm이상의

비가 180~25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도는 앞서 22일 오후 4시 30분 집중호우 대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급경사지 붕괴, 만조시 피해, 휴가·여행객 관리 등을 강조했다. 또한 23일 3개 시군 호우주의보 발효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협업부서의 함께 24시간 상황관리 중이다.

23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접수된 시설물 피해는 없으며, 호우주의보가 끝날 때까지 신속한 피해접수 및 응급복구

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많은 비가 내리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25일까지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붕괴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특히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산간, 계곡, 등의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는 피해발생 후 늦어도 10일 이내에 시군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